

교회 목표

신랄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진화  
이웃 사랑

##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 1:2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5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조영환 편집: 양계웅

## ▶ 믿음으로 풍성한 그릇 (금요집회) ▶

## 성경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까?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이다. 따라서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던 길에서 그 종은 에베다수 3:17, 예수님보다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약대가 바를 뒤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보다 더 쉽고 말씀을 하기도 하셨다(마 19:24). 이 말씀 역시 인간의 생각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 성경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은 인간의 이성과 깨달음의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 대해 잘못 이해하게 된다. 하나님께는 충분히 이해되는 사건이 우리 인간에게는 비정상적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모세의 경우를 보라(민 11:21-23). 우리들이 성경을 이러한 태도로 대하고 있지 않은가? "목사님, 그것은 성경 안에서 서의 이야기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을 아셔야 하지 않습니까? 환경과 조건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대하는 이러한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많다. 예를 들어 개에게 비정상적인 것이 인간에게는 충분히 정상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모순된 일이 더 큰 이해의 능력을 가진 자들(하나님, 천사)에게는 정상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태생으로 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가 바뀐다는 사실이다(고전 13:12). 주님의 재림으로 우리는 지금보다 더 잘 성경을 이해할 수 있으며, 지금은 모순으로 보이는 많은 것들이 이해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10:69. 인간의 지혜는 성경을 철저히 아파라 한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인간의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진실이 아니라, 단지 '성경에 오류가 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행동은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며,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자신을 살피기보다는, 자신이 성경을 판단하려고 한다. 자신의 의지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의 방법과 성향을 자신이 규정하려 한다는 점이다.

성경에 나타난 두 개의 요소를 인간의 생각에 맞추려 한다면, 그것은 결국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모순을 합리화시키려면 어느 하나를 무시하여 둘 사이의 긴장을 없애는 방법이다. 우리가 이 긴장에서 벗어나려면 자연적 유희를 탈피하여 각 요소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에게 동일한 영향을 끼치는 이 두 요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한다. 물론 이것은 자연스럽게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때때로 맹목적이러든지, 무식하다든지, 어리석은 자라고 우리를 비판할 것이기 때문이다(고전 1:18,21). 그러나 실제로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 어리석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하다. 그러다

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유대인은 하늘로부터 오는 신비한 표적만을 구했고, 헬라인은 인간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간구해 찾았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과 이방인들의 삶의 방향이 달랐다. 그러나 이 둘 모두가 한 쪽만을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 이것은 보배이고, 은총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한다(고전 1:23-25).

성경 안에 있는 이율배반적인 사상을 우리들의 이성과 지혜로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생각(이성과 믿음)을 바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단어를 바르게 선택하여 설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보좌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도 주셨기 때문에 성경에 쓰여진 단편적인 부분만을 생각해서는 안되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내용을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한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를 단순히 창세기를 통해서만 볼 것이 아니라 신약의 히브리서에 나온 관련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창 21:11-12, 히 11:17, 19 참조).

성경에는 모든 것이 언급되어 있다. 죄에 관하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주권, 천지창조와 심, 영원한 존재,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은총의 성리, 그리고 인간의 종말이 자세히 다루어지고 확실히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원리 원칙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엄청나게 세밀하고 복잡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바로 모든 교리의 이면에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매우 복잡한 실재(Reality)가 놓여 있다(마 11:25, 요 17:3, 요 14)와 동일한 복잡성을 자연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창조주 어느 한 부분을 갖기 연구해 보면 복잡성을 보게 된다(마 1:6-17). 단순하고 간단하게 보이는 것들도 그 안에 얽힌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송이 풀이나 그 잎사귀와 개미들의 조직 그리고 꿀벌들의 조직을 보면 불룩한 신비함을 느끼게 된다. 태양계, 은하계, 지구의 형성과 움직임 하나에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함이 담겨 있다. 그러므로 결코 표현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 성경 속에는 더더욱 크고 놀라운 신화가 담겨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한다.

우리는 모순처럼 보이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 마음 밭의 상태를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의 마음 밭이 갈기나 돌밭이나 가시밭인가 아닌 좋은 땅인지 돌밭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그래서 좋은 땅만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성경을 대하여야 한다. 이처럼 믿음으로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자가 될, 위로된 길을 걸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 계시된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통해 우리의 삶은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 2005년 믿음으로 나아가는 천국일꾼

##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히 10:22)

2005년 겨울 계절학교가 시작됩니다. 교회의 5대 목표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계절학교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2004년 겨울), “기쁨난 천국일꾼”(2004년 여름)에 이어서 이번에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천국일꾼”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이번 계절학교를 통해서 교회학교 학생들은 천국일꾼이 가져야 할 믿음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음화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달을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넘치는 계절학교가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부서명 | 기간              | 장소    | 주제             | 부서명 | 기간              | 장소    | 주제             |
|-----|-----------------|-------|----------------|-----|-----------------|-------|----------------|
| 영양부 | 2.22(월)~2.23(수) | 영양부실  | 믿음으로 나아가는      | 중등부 | 1.24(월)~1.26(수) | 충현기도원 | 믿음으로 나아가는 천국일꾼 |
| 유아부 | 2.22(월)~2.23(수) | 유아부실  | 믿음으로 나아가는 천국일꾼 | 고등부 | 1.27(목)~1.29(토) | 충현기도원 | 믿음으로 나아가는 천국일꾼 |
| 유치부 | 2.22(월)~2.23(수) | 코아노비움 | 믿음으로 나아가는 천국일꾼 | 대학부 | 2.22(월)~2.24(목) | 충현기도원 | 내려와서 살아가는 천국일꾼 |
| 유년부 | 2.21(월)~2.22(화) | 유년부실  | 믿음으로 나아가는 천국일꾼 | 청년부 | 2.28(월)~3.1(목)  | 충현기도원 | 믿음으로 나아가는 천국일꾼 |
| 초등부 | 2.21(월)~2.22(화) | 초등부실  | 믿음으로 나아가는 천국일꾼 | 청년부 | 2.28(월)~3.1(목)  | 충현기도원 | 믿음으로 나아가는 천국일꾼 |
| 소년부 | 2.21(월)~2.22(화) | 소년부실  | 믿음으로 나아가는 천국일꾼 | 장년부 | 2.20(주일)        | 교외7호  | 주제로 대가이        |
| 중등부 | 1.31(월)~2.2(수)  | 충현기도원 | 믿음으로 나아가는 천국일꾼 | 예배부 | 3.1(월)          | 예배부실  | 믿음으로 나아가는 천국일꾼 |
| 중등부 | 1.24(월)~1.26(수) | 충현기도원 | 믿음으로 나아가는 천국일꾼 |     |                 |       |                |

\*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교육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 “자원봉사!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움 뜻으로 하며(벧전 5:2)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엡 5:23)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 가운데 서로 돌보아 주고 고통과 영광을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고전 12:25-27). 지금이 바로 돌아볼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을 돌아볼 때입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의 주 5일 근무로 부득이하게 생긴 공백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있어 한 사람에게는 한 사람의 책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즐거움 마음으로 자원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앞으로 교회는 제2 임명을 할 때 자원봉사 유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여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준비가 되어있음을 보고요 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게 또한 열심 좋은 길은 너희에게 보이며라”(고전 12:31). 무슨 일이라도 괜찮으니 좋은 길을 열어 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재력들은 기쁨으로 이 일에 먼저 본을 보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자원봉사신청 문에는 사무국으로 하세요.

## \* 다음주(30일)는 선교주일입니다.

마음을 모아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바랍니다.



# THE LAST INVITATION

***“The Spirit and the bride say, “Come.” And let the one who hears say, “Come.” And let the one who is thirsty come; let the one who wishes take the water of life without cost.”***

***(Revelation 22:17)***

The Spirit, which is the Holy Spirit, and the Bride, the body of Christ that is the church, are calling all people to come to Jesus. From the beginning of time to the end of time, this calling is our duty. Father God sent us His Son, Jesus Christ, to save us. After Jesus finished His earthly ministry and rose to heaven, He became our Mediator. Through His Holy Spirit, we carry on God's work. Hence, the Holy Spirit and the church have the immense privilege of sending out the last invitation to come to Jesus.

The entire Bible is an invitation to come to Jesus. The Holy Spirit never works by Himself. He does whatever God the Father and Jesus asks Him to do. The church never works alone either. Its performance depends completely on God's Word and the Holy Spirit's direction. This is why the sermons in our worship services always conclude with calling Jesus. It is our responsibility to invite sinners to salvation. God greatly desires the heavy burdened, suffering, and discouraged to come to Him. Throughout Scripture, God continually calls sinners to Himself. We can find over 2,000 invitations in the Bible! From Adam to Noah, Noah to the Patriarchs, the Patriarchs to the prophets, judges, kings, and all the way to John the Baptist, Jesus, the early church, and now us, God calls us to come. Why does God call us? He is not willing that any should perish. Romans 3:23 reads,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Romans 6:23 further reveals,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fre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The Holy Spirit invites us to come to Jesus. His invitation says come. He only follows God's will. 1 Corinthians 2:10 says, “For to us God revealed them through the Spirit; for the Spirit searches all things, even the depths of God.” Jesus, who is in heaven, sent us the Holy Spirit. The Holy Spirit reveals God's ways, will, and wisdom because He knows exactly what God wants. In today's Bible verse, the Holy Spirit says come. Who is really saying come? God is calling us to come. The Holy Spirit calls sinners to salvation. He helps them to recognize and confess sin, and call on Jesus Christ as their Lord and Savior. Then, He comes into their heart to stay with them, and guide them to heaven. John 16:8&13 says, “And He, when He comes, will convict the world concerning sin and righteousness and judgment. But when He, the Spirit of truth, comes, He will guide you into all the truth; for He will not speak on His own initiative, but whatever He heard, He will speak; and He will disclose to you what is to come.”

When you look at this invitation, God's concern is great. Isaiah 1:18 says, “Come now, and let us reason together, says the Lord; though your sins are as scarlet, they will be as white as snow; though they are red like crimson, they will be like wool.” Do you believe it? God provides everything; He gives only the very best. You are more important to Him than maintaining our universe. 2 Peter 3:10 says, “But the day of the Lord will come like a thief, in which the heavens will pass away with a roar and the elements will be destroyed with

intense heat, and the earth and its works will be burned up.” Since all these things are to be destroyed in this way, you should be “looking for and hastening the coming of the day of God, because of which the heavens will be destroyed by burning, and the elements will melt with intense heat” (2 Pet. 3:12)! Everything is going to disappear, but God does not want you to disappear. He wants you to be with Him. He invites you to live with Him eternally. Sinners coming to Him are more important than nations falling.

Now, you can see why the church's most important, greatest business is giving others His invitation. Recently, churches all over the world are turning to entertaining their congregation members. They are interested in making sure everyone is happy. They do not want poor people, people who were imprisoned or even people who are sick. They do not care about bad, dirty, and suffering persons. The real church, the bride, should call the sinner. Jesus came to this earth for the sinner, “For the Son of Man has come to seek and to save that which was lost” (Lk. 19:10). Moreover, the church's most important duty is to call sinners, but today's church is different. They concentrate on the feelings of members by having famous speakers and singers, dynamic seminars, special fellowship meetings, and upbeat worship. They advertise Jesus like the world advertises products. They are not calling the thirsty, dying people. Jesus called,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heavy-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 (Mt. 11:28).

Jesus told Peter, “up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power it” (Mt. 16:18). Our church is His church. His church works by His power, not human power. There is roughly sixty billion people now living on this earth who are spiritually dying. The tragedies of terror, hunger, wars, disease, sickness, divorce, and death are tearing the world apart. No one is immune. There is no age discrimination. People are hungry, thirsty, and dying everywhere. Here, in today's Bible verse, the Holy Spirit and church are giving the last calling to come. Ephesians 2:20-22 reads, “having been built on the foundation of the apostles and prophets, Christ Jesus Himself being the corner stone, in whom the whole building, being fitted together, is growing into a holy temple in the Lord, in whom you also are being built together into a dwelling of God in the Spirit.”

My dear friends, are you thirsty? If so, then come! The last invitation is so simple. Just come. Jesus will give you eternal life. He will make you a child of God. He will make a place for you in His church. Why turn away or reject the wonderful gift that comes to you without cost? Please, come and receive the water of life. Please, come for time is short. Bow your head, fold your hands, close your eyes, and confess you are a sinner in need of Jesus. He will come and be your Lord and Savior. He will forgive your sins, fill you with the Holy Spirit, and give you eternal life. The last invitation from the Holy Spirit and church is now. Amen. 



# 마지막 초대



김성관 목사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령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계 22:17)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과 신부,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로 나아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 일은 우리가 평생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구원을 위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교회는 참 구원자이신 예수께로 나아오라는 마지막 초대장을 모든 사람들에게로 전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 성령의 초대장

사실 모든 성령은 예수님께로 나아오라는 초대장입니다. 성령님은 결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교회 역시 결코 혼자 일하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항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죄인들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것이기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거운 짐진 자들, 고난 속에 있는 자들, 낙심한 자들이 자기에게 나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항상 하나님은 죄인들을 초대하십니다. 성경에는 2천여 개가 넘는 초대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족장들에 이르기까지, 족장들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과 사사들과 왕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항상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뒤를 더 나아가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합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 성령님의 초대

“오라!” 성령님은 예수님께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성령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과 뜻과 지혜를 계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은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주임을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더욱이 성령님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친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과 13절은 말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 가지 말씀을 할 것이라”(8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진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13절).

## 간절한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것보다 여러분 한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것이 멸하는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벧후 3:12) 그 날에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없어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원토록 자기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간절히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들을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다.

## 죄인들을 향한 초대

이제 여러분은 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것인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요즈음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은 교회에 모이는 회중을 기쁘게 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사람들이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나 병든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한 악하고 추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교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 곧 그리스도의 신부는 죄인들을 초대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죄인을 부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 따라서 죄인들을 초대하는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다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은 유명한 연사들과 가수들을 강단에 세우고, 활기 넘치는 제니자를 개최하며, 특별한 사교 모임을 만들고, 오락적인 요소를 예배에 가미함으로써 어떻게 해서든 회중을 기분 좋게 만들려고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세상이 상품을 광고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광고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교회들은 목마른 자들이나 죽어가는 자들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고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일합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약 육십 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태러, 기아, 전쟁, 질병, 이혼, 죽음의 고통이 세계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을 굶주려 있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 “오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는 성령과 교회가 전하는 마지막 초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나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 마지막 초대

사랑하는 여러분, 목이 마르십니까?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마지막 초대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오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을 하나님과 자녀로 삼아주시길 것입니다. 하늘의 저쪽에 여러분을 위한 장소를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런 값도 요구하지 않는 이 놀라운 선물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것을 거절하며 외면하려 합니까? 어서 와서 주님이 주시는 생령수를 받으십시오.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으니 지체하지 말고 오십시오. 진심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는 예수님이 꼭 필요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회개하는 여러분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구주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과 교회가 전하는 마지막 초대에 지금 즉시 나아가지 원합니다. 아멘



## 수요1부 예배 메시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자  
(딤후 2:13)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반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딤후 1:12).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딤후 1:16).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우리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 살아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복스러운 소망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된다.

## 재림하실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신다. 우리는 이것을 소망해야 한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3) 공포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주님을 잊은 채 살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언제 우리의 삶이 끝날지 모른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요 17:24). 예수님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오기를 주로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는가? 세상의 것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재림하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주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사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골 3:1).

재림하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면 우리도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 이 신앙이 여러분 안에 자리잡고 있는가? "나팔 소리가 나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때까지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지 않은 불가불 썩지 않을 것을 입었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다"(고전 15:52,53).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주님께로 갈 수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사립들과 똑같이 이 땅을 순회하시다가 올라가셨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한다. 그 재림의 날을 고대해야 한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리라"(벧 3:21).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형체로 변화케 한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온혜로 주 영광 받으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전 288).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변한다.

재림하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면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이는 온총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자유와 평화가 있다.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마 13:43). 주님을 향해 가가 열려 있어야 한다. 온총의 귀가 열려 있는가? 여러분 안에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살아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골 3:4). 그러나 기쁨과 영광이 있기 전까지는 고난이 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거친대.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출판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리라"(전 388).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 노릇한 대에 애행되시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롬 8:21). 천국은 어떠한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계 21:4).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있다면 천국이 보인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기쁨과 평안이 출판되다.

재림하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이되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벧후 3:12,13). 새 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 "여루살렘 금성이 복 가득하다. 내 너를 생장할 때 마음이 기쁘다. 비할 데 없는 복과 그 빛난 채와 내 바를 모든 기쁨과 다 측량 못하리라"(전 538). "네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서 처음 하늘과 땅을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계 21:1). "다시 밤이 없었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비취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라"(계 22:5). 천국은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빛이 세세토록 있는 곳이다.

재림하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면 우리에게만 놀라는 상급이 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만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 4:8). 진실로 주님의 날을 사모할 때 상급이 있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잖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전 449).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처럼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모할 때 여러분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종이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벧전 5:4).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계 22:12). 믿음의 사적이 중요하더라 263,23,24. 믿음의 사적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이제 곧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리자.

## 권사 칼럼

## 힘써 복음을 전하는 깨끗한 그릇



신준자 (권사회 회장)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마른 막대 기만도 못한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주신 주님! 생소한 하여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사와 찬송만 터져나를 뿜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벧 4:6). 죄인인 저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단지 저희들은 엎드려 기도할 뿐입니다.

## 여호와를 힘써 알자!

지난 해 우리 권사회 목표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자"였습니다. 모든 권사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맘을 쏟았지만, 역시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했던 한 해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2005년 권사회의 목표는 "여호와를 힘써 알자"(계 6:3)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힘써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권사회가 되도록 힘써겠습니다.

##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먼저 신령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권사들이 예배 15분 전에 나와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예배를 위해 수종이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 더욱 섬길 것이며, 주요예배의 대표기도 담당 권사들을 더욱 준비시켜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국ীয় 양생을 위해서 우리 권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기도입니다. 믿음과 열심, 열심과 천국인들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교와 전도하는 일에 힘이 되는 대가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권사들은 육신적으로 많이 연약하지만 주님이 쓰시고자 하신다면 그 어디라도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순종하겠습니다. 바울이 생명을 내 놓고 복음을 전한 것처럼, 루디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 목숨을 잃은 것처럼 우리 권사들도 십자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날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도 힘써겠습니다. 무엇보다도 24시간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일에 전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깨끗한 그릇

사실 우리 권사들은 여러 모양으로 연약합니다. 또한 오랜 신앙 생활로 생겨난 교만한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힘써 알리고 할 때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부족하고 연약한 권사들이지만 영적으로 깨어나 영을 분별할 줄 아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는 더욱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권사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할 것입니다.

## 감사와 찬성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출생되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딤후 1:12). "감사와 찬성" 우리들은 주님께서 가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마음 속에 새기며 주님께서 부름받으신 그 날까지 여호와를 아는 일에 더욱 힘써 천국만을 소망하는 권사회가 되려고 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권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1. 본인이 단기선교를 가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번이 처음 가는 선교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제 주위 사람들이 단기선교에 가는 것을 보고 나도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여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도하면서 이번 선교를 통해 저를 훈련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날은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때라고 배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꿈꾸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단기선교를 지원합니다. (김요셉)

## 2. 우리 교회의 선교 방침을 어떻게 알고 이해하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유재혁

현지 사역자들과 접촉하지 않고 독립적인 사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 전도가 금지되어 있는 곳에서는 최대한 현지 사역자와 부딪치지 않게 사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혁 측무)

현지인들을 위한 선물을 일체 금하는 것. 우리가 가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게다가 지역적으로 오지이기 때문에 작은 것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부터 노인에게까지 재한 일이 전신된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는 십자가 복음이 무엇보다 가장 큰 선물임을 확신합니다. (김요셉)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양순에 성경과 전도지만을 들고 택한 백성을 찾아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친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최종순 팀장)

## 3. 선교를 위해 훈련과 준비를 하며 교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지금 선교를 준비하는데 있어 약간 시간에 쫓기는 느낌이 있습니다. 대학부의 팀 편성이 좀더 빨리 이루어져 보다 적임의 일체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MTC나 선교 훈련에 있어서 매년 실행되고 있는 기본적인 것을 전달하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문화별로 좀더 구체적으로 서로 정보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두루 회계)



최두루

물론 선교지에 가서 현지 음식을 먹으며 그들의 문화 안으로 침투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지만, 음식이 몸에 맞지 않는 약한 분들과 있고 너무 느끼해서 먹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형남)

대학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12월은 학교 시험기간인데 그것이 고려되지 않고 시험기간 중에도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유재혁)

## 4. 선교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경험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는 모일 때마다 함께 사도행전을 읽으며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저런 준비를 하느라고 나도 모르게 일에 몰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와 선교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김요셉)

여러 가지 준비하고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한계를 제 일로 고백하게 하였고 더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오현)

## 2005년을 여는 대학부팀

대학부에서 14개 팀이 겨울 방학을 맞이하여 선교를 준비하고 출발한다.  
2005년 단기선교의 첫 발을 내딛는 대학부 선교팀 중 한 팀을 만나 몇 가지 질문을 했다.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지난 여름 단기선교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에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단기선교 여비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출발 3일 전에 선교지가 바뀌어서 아무 것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간 선교지에서는 이미 우리를 도와줄 사람과 만나야 할 영혼들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전혜정 서기)

## 5. 선교를 준비하며 힘든 점은 없었나요?



오현

자꾸만 선교 준비가 점으로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권신청, 언어 공부, 건강검진 등 신경써야 할 일이 많아 나도 모르게 조금씩 지치고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오현)

개인적으로 아직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부모님을 설득하고 선교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혜정)

일에 치이다 보면 어린 마음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감격보다 일이 우선되면서 영혼이 메말라 더 힘들어집니다. 일보다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에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유재혁)

주님의 은혜로 특별히 힘들다고 여겨지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어 감사합니다. (최두루)

## 6. 이번 단기선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말씀해 주세요.

사역지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행상을 발견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감격에 겨워 믿음을 고백하는 영혼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김요셉)

솔직히 아직도 인간적인 두려움과 아직 준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있지만 진정으로 기도하고 구할 때 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들을 만날 것도 기대됩니다. (김요셉)

힘든 곳으로 가는 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갑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크고 넓은 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실존적인 기쁨이 내 안에 항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재혁)

내 육체가 살아 숨쉬는 것처럼 내 영혼도 동일하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민감하게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선교지에 준비된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 몸과 마음으로 뜨겁고 조금이나마 주님을 닮아가고 싶었습니다. 사역지에서 어떤 감정이 다뤄지도록 하나님께 기뻐하며 주님의 은사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최두루)



전혜정 / 이형남

## 7. 단기선교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해 주세요.



최종순

교회 전체가 성령님의 역사로 생동감 있게 변화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이를 위해 추구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감사합니다. (최종순)

단기선교를 한 번도 가지 않은 분들, 지금이 기회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아멘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러 열망으로 나아가십시오. (이형남)

하나님께 헌신하되 즐거이 헌신하며 복음에 대한 감사 때문에 감격과 감동으로 단기선교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요셉)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열매를 향해서

### 주님의 말씀에 듣고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 앞에 문안드립니다. 저는 L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현지인 사역자 가미니 드림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 약전(2004.12.26)에 일어난 지진에 의한 피해를 입은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저의 많은 친구들이 지진해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실 이들을 위해서 제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 나라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겐 큰 인내를 요

구한 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진해일로 그런 어려움이 사라졌다는 사람들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낫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큰 구원의 은혜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만을 전할 것입니다.

다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부족한 저에게 이와 같은 귀한 일을 맡겨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신 주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 로 L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번 지진해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통해 참 구원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것들이 속히 복귀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사역이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역이 되도록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나"(마 7:24).

2005년 1월 L국에서 가미니 드림

### 이런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 기간                | 팀    | 팀장  | 기간                | 팀    | 팀장  |
|-------------------|------|-----|-------------------|------|-----|
| 1월 25(화)~2월 4(금)  | 대학부1 | 양승복 | 1월 29(일)~2월 10(목) | 대학부3 | 최준길 |
| 1월 27(일)~2월 4(금)  | 직할1  | 손정애 | 1월 29(일)~2월 10(목) | 대학부4 | 정용희 |
| 1월 29(일)~2월 10(목) | 대학부2 | 최준순 |                   |      |     |

\*오직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 벽

며칠 전 교회에 가기 위해 지하철도를 탔는데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다. 초라한 행색을 한 노숙자였다. 더러운 옷과 길에서 뭉친 머리카락, 덩수룩하게 기른 수염, 지저분한 손, 찢겨 남아 풍기는 쉰내와 냄새 등등. 나는 자연스럽게 그 아저씨를 주목하게 되었다. 지하철도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아저씨의 작은 동작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아저씨는 열리지 않는 쪽 문에 기대어 있다가 갑자기 주저앉았다. 너무나 작고 힘겨워 보였다. 옆에 앉아 있던 여자가 놀라서 벌떡 일어나자, 아저씨는 눈치를 살피며 다가와 그 자리에 앉았다. 자리에 앉은 아저씨는 편하게 앉지도 못하고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 쇠원처럼 최대한 몸을 움츠리고 있었다. 그러자 아저씨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코를 막고 일어나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다른 칸으로 가버렸다.

아저씨의 주변엔 마치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아무도 그 옆에 가려고 하지 않았다. 너무나 안타깝고 비참하기까지 했다. 아저씨의 모습을 지켜보며 '나라도 옆에 앉아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마음으로는 앉고 싶었지만 섣불리 몸을 따라가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에 두려웠다. 지하철에서 내려 교회를 걸어가는 내내 아저씨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어른거렸다. 쇠원처럼 움츠린 모습, 아저씨 주변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벽, 마음 속으로는 다가가고 싶었지만 나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저씨와 다른 벽 속에서 얼굴을 찌푸리고 있는 우리 중 한 명이었다.

아저씨를 보며 '예수님이 나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오셨을 때 난 어떻게 대할까?' 하는 생각을 했다. 초라하고 낮은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나 또한 밀시하며 모른 척하진 않을까? 그 때에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망설이고 있을 것인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고 내 입술은 고백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기적이고 위선적이었는가를 나는 나의 틀 안에서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은 아니었나 되돌아보게 되었다.

진정으로 열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며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물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영혼을 치유하시며 그들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보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 노력해 보았지만, 내 힘과 의지로는 결코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었다.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하나하나가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와 같이 작고 추한 자도 구원하시고 사용하신다는 믿을 없이는 감히 감당할 수도 이겨낼 수도 없는 일이다. 주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폐한 내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니 삼아 주신 것처럼 그 은혜와 사랑이 진실로 크고 놀라와 오늘도 그 사랑을 감당치 못하여 작고 낮은 모습으로 대학부의 어린 영혼들을 바라보고 섬기기 원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병들고 굶주린 영혼들에게도 생명의 진리되신 하나님만을 전하는 자이고 싶다.

"임금이 대담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마 25:40).



백현구 (대학부 팀장)

## 새내기 교사의 고백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9월부터 영아부를 섬기게 된 새내기 교사 안정희입니다. 결혼과 함께 연년생인 아이 둘을 키우다보니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보니 늘 밤중에 목발랐고 우리 예배조차도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신앙의 황무지가 따로 없었습니다. 아직도 아이들을 위해서 상항이 많아서 어렵지만 주님께서 소망을 주셔서 영아부의 교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주일 이른 아침부터 두 아이를 챙겨서 나오기 힘들 때도 많이 있었는데 주님은 당신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있어서는 저보다도 더 앞서 저의 염려와 고민을 아시고 제 주위의 환경을 바꿔주셨습니다.

영아부의 구성원은 어린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별 부담없이 영아부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사실 영아부를 섬기기 전까지 어린이집 교사도 아이들을 많이 접했고 엄마들과도 상담을 많이 했던 터라 인간적인 교만이 계속 있었습니다. 제 교관은 첫 시간에 산산이 조각나 버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예배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만큼 예배가 경건했고 그 예배 가운데 자신을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찬양인도하는 선생님들의 손끝 하나하나에 은혜가 묻어났고 단 뒤에서

## 전도 현장에서

## 일어나 빛을 발하자

어느 해 여름, 농어촌 전도대에서 강진도 정선의 작은 교회에 갔었다. 마지막 날 초창 전도교회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나의 눈에는 찬양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흐르고 또 흘렀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따라 나온 사람들, 그러나 그렇게라도 나와 준 사람들을 보며 '참으로 저 영혼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으니 안타깝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흘러나는 눈물이었다. 그 이후 나의 전도 생활이 시작되었다.

어렵고 힘들었던 전도훈련을 마치고 전도를 하던 어느 날, 나는 평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고백하였다. 그 후 충청전도대의 한 사람으로 교회주변에 다니며 전도하고 수요일에는 전도대원과 함께 강변역에서 노방전도 및 축초전도를 실시하였다. 전도지를 받지 않고 가는 사람들, 받아도 귀찮다는 표정으로 전도지를 받는 사람들,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너나 잘 믿어라' 하면서 돌아서는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그런 일을 당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화도 났지만 그 영혼들이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어서 주님께 안타깝게 기도했다.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언젠가는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2005년도 새해가 밝았다. 교회는 금년에 전도와 선교라는 두 기둥을 굳게 세우고 갈 것을 발표하였다. 특별히 그동안 충분한 전도활동을 하지 못하던 각 전도회를 중심으로 전도활동을 활발히 할 것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들고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려고 할 때 복음을 빛난 자 된 우리를 얻고 있는 사슬은 무엇인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라는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가? 왜 듣고도 못 들은게 하는가? 왜 미루고 있는가? 무엇을 망설이고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한 영혼들을 가슴에 안고 울부짖으며 기도하지 않는 죄를, 눈에 보이는 복음의 열매가 없다고 전도하기를 쉬는 죄를, 전도지만 주는 것은 형식적인 일이라고 중도 포기한 어리석음을, 복음의 능력을 경솔하게 단정 지어 나는 못한다고 속단한 미련함을,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행하지 않았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자. 그리고 용기를 내어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자.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주변, 역삼동 일대, 기리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며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의 복음을 집집마다 전하자. 그 소리가 골목마다, 집집마다 메아리쳐 울려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도록.

국내전도, 단기선교를 가릴 것 없이 주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자. 작년 여름 선교 사역에서 만난 배롱강가의 맨발의 어린 소녀, 시장 어귀에서 만난 불쌍한 영혼들이 늘 눈에 밟힌다.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한 곳으로 가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치는 2005년의 충헌교회가 되자.

백현구(교구)

선포되는 말씀에는 주님의 강함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순서 순서를 맡고 계신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진정 섬기는 종의 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엄마들에게 말도 잘하고 아이들도 능수능란하게 다녔던 제가 영적으로 영아부를 섬기는 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아부에서 드린 첫 예배를 통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듯 겸손함으로 아이들을 섬기며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섭리를 제 맘 속이 깨달았습니다. 마른 패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강한 손에 이끌림이 되면 능지 못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작은 입술의 찬양이, 내 작은 기도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큰 사명을 이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네전 새해를 시작한 2005년이 기뻐요! 마음에 시원합니다.

이 한 해 동안 또 얼마나 많은 주의 사랑을 확인하며 살아가게 될지... 또한 이런 주일이 건강입니다. '이런, 아직 기도 못했네. 말씀도 열렬한은 준비해야지.' 작년이 사람을 만났다고 요즘 저는 활기차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맡겨주시는 사명에 먼저 무릎 꿇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안정희 (영아부 교사)



## 교회탐방 50 외선부 A국

##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매주일, 증언복직관에 가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이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조국을 떠나 온 사람들로써 그리스도라는 끈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함께 살아가고 있다. 바로 외국인 선교부의 A국이다.

## A국의 구성원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구 소련지역에서 한국으로 온 사람들로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미라 전도사)



##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주 토요일에 의정부, 안산, 등대문에서 구역모임을 가집니다. 식구들은 약 다섯 사람 정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전도심방, 위로심방, 병원심방을 통해 영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미라 전도사)

선교팀을 통해 맺은 사제를 소개해 주십시오. 송호안 전도사를 비롯 패많은 분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평신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이분들이 그국에 돌아가서도 지속적으로 전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미숙 선생님)

## 신앙생활을 하게 된 동기와 현재의 생활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머니와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 고전했지만 성경을 보면서 참예수를 알게 되었어요. 그 후 많은 기적들을 보았지요. 저를 포함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주님의 은사로 위기를 넘겼고 돈이 없는 상태에서도 기적적으로 여러 수술을 받고 병까지 고쳤어요. (박실리)

저는 술과 담배는 물론 마약까지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 그국에서 처음 교회에 갔을 때, 신인하 믿음의 평화를 느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조금씩 새 조급식 나쁜 버릇들을 고쳐갔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세상적인 것들을 딱둑 끊어버리고 주의 자녀가 되었어요. (세로게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살면서 돈도 많이 탕진하고 온갖 나쁜 짓을 많이도 했어요. 그러나 마음에 평화가 없었어요. 한때 성경을 읽었지만 믿음의 확신이 없었고 오직 세상에 대한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나 주의 인도로 한국에 와서 중언교회에 다니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구

주로 영접했어요. 지금은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로만)

## 신앙 생활하는 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속소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멀어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박실리)  
일이 너무 늦게 끝나 성공공부할 시간이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아내와 장인 장모가 예수님을 모르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로만)

## 중언교의 성도들과 함께 싶은 말씀은?

감사할 뿐입니다. 특히 설날과 주석에는 기도원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그때 영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세로게이)  
중언교회와 외국인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도움을 준 것 감사합니다. 특히 타국에 와서 그국의 말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실리)  
그국의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로만)  
우리 선교팀의 성도들은 대부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한 마음으로 교회에 옵니다. 성도들께서 교회에 오실 때, 이분들을 태워주어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차량 봉사해 주실 성도님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꼭 도와 주십시오. (정미숙 선생님)

##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이 집으로 가는 것이면 집으로 가고 한국에 있는 것이면 한국에 있을 생각입니다. (박실리)  
그국에 돌아가면 선교센터를 만들 생각입니다. (세로게이)  
사역을 하고 싶어요. 고향에 돌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로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분들을 바라보아. 이 분들이 그국에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도록 해야 한다. "예수님이 진배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정실)

## 다름 주일 찬송

## 31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 찬송은 톰프슨(Will Lamartine Thompson)이 부하게 되었을 때, 누가복음 15장 11-32절에 있는 방자의 비유를 생각하여 작사, 작곡한 것이다. 그는 방자의 아버지가 재민대로 집을 나가 허랑방랑하던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심정을 생각하며 이 찬송을 불렀다.

1절은 "아직도 심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라"(눅 15:20). 이 말은 속의 방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집으로 돌아오길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예수님의 마음에 비유해서 노래한다.

후렴은 "집으로 돌아오라 Come home, Come home"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최민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심정에 비추어 노래한다.

2절은 예수께서 간절히 돌아오기를 바랄 때 주님께서 그 큰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지체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의 형식으로 돌아오기를 호소한다.

3절은 세월은 살림이 흐르고, 사람의 그늘은 지금 우리 앞에 다가가 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가서 돌아와 있을 것을 말한다.

4절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예비하셨기에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 는 영원한 우리 주의 본향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오늘 우리에게 베푸셨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자비한 주님 앞에 나아가자. 그 분은 큰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이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 지금 오라.

(한원임회)

## 새 · 자 · 족 · 원 · 형 · 합 · 나 · 다

| 번호  | 성명  | 교구 소속부서 | 인도자    | 번호  | 성명  | 교구 소속부서 | 인도자    | 번호  | 성명     | 교구 소속부서 | 인도자    | 번호  | 성명  | 교구 소속부서 | 인도자    |
|-----|-----|---------|--------|-----|-----|---------|--------|-----|--------|---------|--------|-----|-----|---------|--------|
| 152 | 이대현 | 19 청년2부 | 성일(1)  | 179 | 이진걸 | 16 고등부  | 이성환(1) | 207 | 이형우    | 19 고등부  | 강민규(2) | 234 | 이성혜 | 17 청년1부 | 이민규(1) |
| 153 | 김성호 | 19 대학부  | 박형진(1) | 180 | 이진걸 | 19 청년1부 | 김창환(1) | 208 | 권옥용    | 19 대학부  | 김종희(3) | 235 | 김재현 | 19 청년1부 | 유재욱(1) |
| 154 | 이해원 | 19 대학부  | 김희연(1) | 181 | 이정현 | 19 대학부  | 예종환(1) | 209 | 절라     | 19 외선부  | 김재현(4) | 236 | 서명숙 | 1 청년1부  | 남영준(1) |
| 155 | 백은혜 | 19 대학부  | 허세태(1) | 182 | 김현진 | 19 대학부  | 서민희(1) | 210 | 김구진    | 19 대학부  | 전현민(1) | 237 | 윤종원 | 19 청년1부 | 김관도(1) |
| 156 | 이후조 | 15 학생부  | 김지혜(1) | 183 | 김병태 | 19 대학부  | 이현철(1) | 211 | 윤종태    | 19 청년1부 | 허정환(1) | 238 | 송수현 | 19 대학부  | 박준상(1) |
| 157 | 나은진 | 8 청년1부  | 최환규(1) | 184 | 이병태 | 1 청년2부  | 전현희(1) | 212 | 최희연    | 19 외선부  |        | 239 | 박민규 | 19 대학부  | 박성준(1) |
| 158 | 최준진 | 19 대학부  | 김윤진(1) | 185 | 김광진 | 1 청년3부  | 정영민(1) | 213 | 최지민    | 19 고등부  | 한재환(1) | 240 | 구현영 | 4 청년1부  | 오영재(1) |
| 159 | 유준남 | 19 대학부  | 우정준(1) | 186 | 정지영 | 19 대학부  | 유종훈(1) | 214 | 한민     | 19 대학부  | 이현배(1) | 241 | 서은은 | 19 대학부  | 권오민(1) |
| 160 | 안영애 | 19 대학부  | 유정준(1) | 187 | 윤문진 | 19 대학부  | 이현철(1) | 215 | 사나     | 19 외선부  | 김재현(4) | 242 | 김수현 | 19 대학부  | 송민규(1) |
| 161 | 이준주 | 13 청년2부 | 조옥재(1) | 188 | 김지민 | 19 청년1부 | 조진환(1) | 216 | 이혜우    | 19 외선부  | 유두영(1) | 243 | 허우석 | 19 청년1부 | 배지혜(1) |
| 162 | 박창해 | 8 청년2부  |        | 189 | 박성민 | 19 대학부  | 서민(1)  | 217 | 황준걸    | 19 외선부  | 이영환(1) | 244 | 김호진 | 19 대학부  | 이대호(1) |
| 163 | 유석민 | 19 고등부  | 김재환(1) | 190 | 이성진 | 19 대학부  | 홍은진(1) | 218 | 김수연    | 19 중등3부 | 구지희(1) | 245 | 조승현 | 19 대학부  | 박성준(1) |
| 164 | 김종숙 | 8 청년1부  | 박순근(1) | 191 | 심선미 | 19 대학부  | 박영환(1) | 219 | 성현우    | 1 청년2부  | 영종준(1) | 246 | 전현하 | 19 대학부  | 오대식(1) |
| 165 | 김경민 | 19 고등부  | 이성환(1) | 192 | 김현진 | 19 대학부  | 김현걸(1) | 220 | 박찬호    | 19 대학부  | 김성일(1) | 247 | 김정호 | 19 대학부  | 유지영(1) |
| 166 | 김준현 | 19 대학부  | 이현철(1) | 193 | 김현진 | 19 대학부  | 이현철(1) | 221 | 이진현    | 19 대학부  | 한다경(1) | 248 | 김민준 | 19 대학부  | 오종근(1) |
| 167 | 홍수현 | 19 대학부  | 조은혜(1) | 194 | 서명영 | 6 청년1부  | 오영환(1) | 222 | 김준호    | 19 청년1부 | 박주진(1) | 249 | 이정호 | 19 대학부  | 전성민(1) |
| 168 | 김용준 | 19 대학부  | 박진건(1) | 195 | 최희준 | 19 고등부  | 고영환(1) | 223 | 권태준    | 19 청년1부 | 박성환(1) | 250 | 이소영 | 19 대학부  | 한영은(1) |
| 169 | 한규환 | 19 대학부  | 장국환(1) | 196 | 최재성 | 7 고등부   | 이성환(1) | 224 | 김정현    | 19 고등부  | 김기환(1) | 251 | 이진용 | 19 대학부  | 고종현(1) |
| 170 | 조지석 | 9 청년3부  | 장승규(1) | 198 | 김정현 | 13 청년3부 | 김정환(1) | 225 | 최희연    | 19 대학부  | 최현배(1) | 252 | 이민정 | 19 청년1부 | 김자영(1) |
| 171 | 김재민 | 19 대학부  | 김진건(1) | 199 | 김정현 | 19 청년2부 | 양승철(1) | 226 | 신현우    | 19 대학부  | 김재현(4) | 253 | 김재현 | 19 대학부  | 김재현(1) |
| 172 | 전은미 | 5 소망부   | 조수진(1) | 200 | 황민정 | 16 청년2부 | 양승철(1) | 227 | Sampin | 19 외선부  | 고계송(1) | 254 | 이지훈 | 19 대학부  | 장태민(1) |
| 173 | 이윤진 | 19 청년1부 | 이진우(1) | 201 | 김성태 | 19 대학부  | 이영환(1) | 228 | 마요부부   | 19 외선부  | 공지훈(1) | 255 | 김민준 | 19 대학부  |        |
| 174 | 오영민 | 12 청년1부 | 남용순(1) | 202 | 최 진 | 19 청년1부 | 이연희(1) | 229 | 송태민    | 19 외선부  | 김정환(1) | 256 | 송준우 | 19 대학부  | 김정환(1) |
| 175 | 이영진 | 19 청년3부 | 이영진(1) | 203 | 김지민 | 19 대학부  | 이대호(1) | 230 | 김지민    | 19 고등부  | 김정환(1) | 257 | 남영준 | 19 대학부  | 전성민(1) |
| 176 | 이영진 | 19 대학부  | 윤태경(1) | 204 | 한준호 | 19 고등부  | 최지환(1) | 231 | 조요미    | 19 고등부  | 김정환(1) | 258 | 이정호 | 19 청년1부 | 이규진(1) |
| 177 | 유정민 | 19 대학부  | 박정환(1) | 205 | 최희준 | 19 고등부  | 박정환(1) | 232 | 조희준    | 19 고등부  | 박정환(1) | 259 | 김민준 | 19 청년1부 | 조종민(1) |
| 178 | 김경미 | 8 청년3부  | 김태환(1) | 206 | 문민지 | 11 청년1부 | 안성환(1) | 233 | 신현정    | 17 청년1부 | 이민규(1) | 260 | 류 라 | 19 외선부  |        |

※ 중언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